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사순시기는 단식과 금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성화되는 시기입니다.
- ◆ 단식과 금육을 통하여 절약하신 금액을 매번 사순 애공함에 모으셔서 부활대축일 미사 전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순 판공성사 안내
 - 사순기간 동안 미사 전후로 판공성사를 보시고 기록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역별 가정 면담 및 학생 면담
 - 일시: 매주 주일 미사 후 (가정면담)
매주 금요일 미사 후 (학생면담)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정하상, 황석두, 이호영 구역 (가정) 성가대, 청년성서모임 (학생)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레지오 상급평의회 소식
 - 3월 꾸리아 경 꼬미시움 회합 : 3월 8일(일) 오후 3시 Holy Cross Church
 - 아치에스 행사 : 3월 22일(일) 오후 3시 Holy Family Church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3월 14일 (토) 오후 7시
 - 장소: 서태수 바오로 형제님 댁
259 Hopewell Ct.
Powell, OH 43065 (614) 436-6354
- ◆ 친교 준비 봉사자
 - 3월 8일: 이영수 3월 15일: 연도흠
- ◆ 3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학생 제단체 모임 안내

단체	정기모임	담당자 연락처
증거자의 모후	금요일 미사(5:30) 후 Parish Center	김준식 안셀모 (614-403-8510)
성가대	주일 오전 11시 Parish Center	박영주 마리아 (614-315-8598)
청년성서모임	금요일 저녁 7시 Parish Center	김미정 엘리스 (614-403-2685)

-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꼭 위 단체 중 하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66.00
교 무 금	\$1,180.00

- 교 무 금: 문승태 박석배 한석철 권혁제 홍그루 최규선 이도근 윤형석 김도균 박귀영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사순 제2주일 March 8, 2009



<예수님의 성탄과 영광스러운 변모>

11세기, 채색삽화, 밤베르그 도서관, 독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창세기 22,1-2.9-10-13.15-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8,31-34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복음환호송 ◎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르코 9,2-10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4,363단 30명
이호영	220단 2명	17,195단 10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20단 2명	2/22/04 - 3/1/09 (263주)

※ 총누계: 210,268단 12,73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3월8일	3월15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116 ♫ 봉헌: 511
 ♫ 성체: 169 174 ♫ 파견: 119

그분의 웃은 새하얗게 빛났다

구요비 음 신부/서울대교구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프라도회의 국제회의에 참석 중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선종 소식을 접하였다. 서둘러 귀국하려는데 여러 신부님들이 만류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슬픔에 참여합시다!” 하고 간청한다!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며 기도하다가 “아! 추기경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웃으시며 강복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더욱 그러하다. 김추기경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시공을 초월하여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인들의 통공을 만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는 특별히 ‘그분의 웃은 ... 새하얗게 빛났다(3절)’고 말한다. 몸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이며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예수님의 이 외적인 변모는 이분의 내적인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즉,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성(神性)을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신성(神性)이란 다름 아니라 이분이 지니고 계신 선한 마음(善性)을 말하는데 ‘선(善)은 존재(存在)의 자기확산성을 지니고 있다’(토마스 아퀴나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5절)’하고 고백한다. 이에 비추어 볼때 참된 아름다움(美)이란, 선한 마음(善性)이 외모로 흘러넘쳐 찬란한 빛처럼 확산되어 가는 걸 말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묵시 1,13-16)을 미리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를 암시하신다(9절).

예수님의 존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선하신 마음이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주시려는 오롯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이다. 이 선한 의지는 이미 이분의 탄생과 더불어 온 생애 안에서 실현되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이분의 수난과 십자가의 길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아름다움은 온 생애와 모든 행동 안에 퍼져 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모범 하나하나가 이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당신이 겪으실 수난에 앞서, 이 수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의 신비를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의 신비 안에 주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할 때에 주님 영광의 빛이 이미 이 고통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7절).

바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렵듯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2코린 3,16-18).